

## 연금시장리뷰 36호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올바른 재무 설계 방향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도재무설계 : 조천수 삼성지점장(02-3452-1940, tiger@podofp.com)

## □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올바른 재무 설계 방향

영국의 언론인이자 경제학자인 폴 월리스(Paul Wallace)는 고령화사회의 충격을 'age-quake'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지진에 비유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 년경에는 리히터 규모 9.0 에 달하는 강진의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19 년,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7 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프랑스나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 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 년과 2026 년에는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우리나라의 은퇴 준비 현실은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됐던 5 년 넘게 노모를 돌보지 않던 성형외과 의사에게 노모에게 매달 50 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낀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게 다가올 은퇴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부모를 봉양하면 물 흐르듯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모습을 본 그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부모를 봉양한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 교육에 그 누구보다 아낌없는 투자를 했던 그들은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변화를 봐도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의 2000 년대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내 부모에 대한 노후 부담을 가족이 져야 한다는 견해보다 가족과 사회,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은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의 회피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생각 말이다. 이제 준비 없이 늙는 것을 걱정만 하며 보낼 수는 없다.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녀교육비, 대출상환 등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녹록지 않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재무목표들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행복의 기준을 미래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퇴 설계의 기본 원칙은 현재 삶의 행복과 은퇴 후의 행복을 균형 있게 조절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는 구체적인 은퇴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상되는 은퇴 시점과 은퇴생활비 규모,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무적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은퇴한 이후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비재무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필수이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미래의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해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현재의 행복을 쫓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I. 대한민국 은퇴 준비의 현실

###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이미 2000 년에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
  - 2019 년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 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고령화사회 : 노인인구 비율 7%, 고령사회 : 노인인구 비율 14%, 초고령사회 : 노인인구 비율 20%)
- 반면 출산율은 2010 년 기준 1.22 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부양할 체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가분수 형태의 인구구조는 스스로 은퇴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 대한민국 은퇴 준비 성적은 낙제점

- 지난해 삼성생명의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은퇴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40%를 넘었고, 자녀에게 은퇴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비중이 50%를 넘었음
  - '은퇴 후 노후생활비 중 자녀에게 부양 받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없음'이 53.9%, '20% 미만'이 32.8%에 달했음. 노후자금 중 50% 이상을 자녀가 대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했음
  - '생각하는 은퇴생활비 규모는?'이라는 질문에는 200 만~300 만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고 300 만~500 만원 미만이 27.4%, 100 만~200 만원 미만 19.6% 등이었음
  - '은퇴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7.4%), '생각만 하고 있다'(33%) 등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40%에 이르렀음
  - 충분히 준비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에 그쳤음
  - 노후자금 마련은 임대용 부동산(35.2%)이 1 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연금(34.2%)과 금융자산(22.5%), 토지(5.1%), 아파트(3.1%) 등의 순이었음
  - 노후생활비 중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은 20% 미만(58.9%)이 가장 많았음

○ 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변화

- 갈수록 노인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노인부양 의식은 급격히 약화되어 노인부양의 주체가 가정에서 사회·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노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의견은 2002 년 70.7%에서 2010 년 36.0%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의견은 같은 기간 18.2%에서 47.4%로 두 배이상 증가했음(통계청, 2010 년 사회조사)

<표 3>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2002	2006	2008	2010
스스로 해결	9.6	7.8	11.9	12.7
가족	70.7	63.4	40.7	36.0
가족과 정부·사회	18.2	26.4	43.6	47.4
정부·사회	1.3	2.3	3.8	3.9
기타	0.2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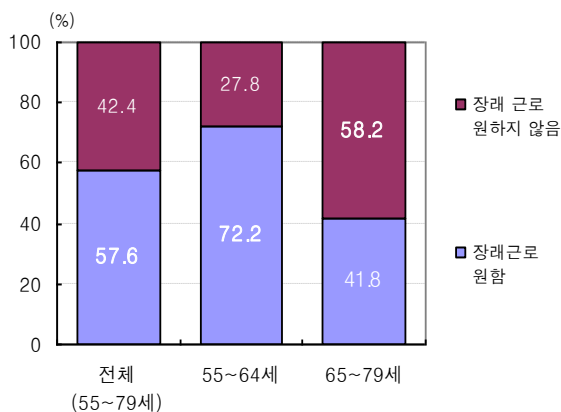
주: '부모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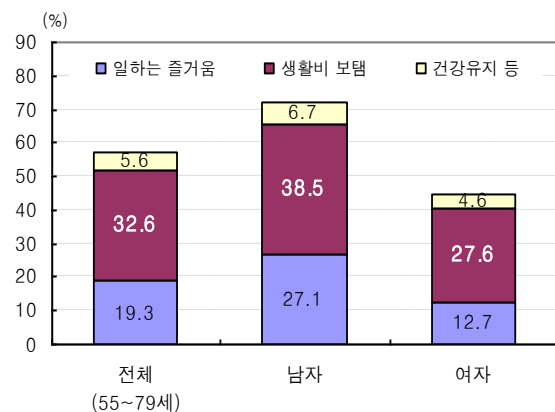
○ 고령자의 취업의사 1 순위 목표는 부족한 생계비 마련

- 2010 년에 발간된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은퇴 이후 분명한 취업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 고령층(55~79 세) 인구에서 향후 취업 희망자는 57.6%로 나타났고, 이를 연령구조별로 보면 55~64 세의 비율(72.2%)이 65~79 세(41.8%)보다 높게 나타났음
  - 이들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이었음

< 고령자의 취업의사 >



< 장래 근로 원하는 고령자의 이유 >



\* 자료 : 통계청, 「고령자통계(2009)」,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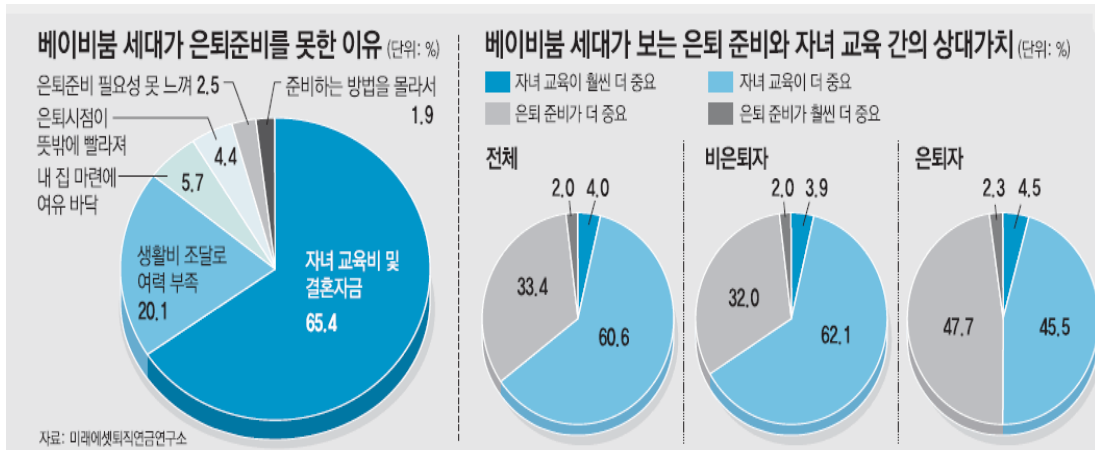
## II. 은퇴 준비의 방해 요인

### ○ 은퇴 고민의 회피

- 은퇴 고민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를 준비할 만한 여윌돈이 없다는 것임. 주택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대출 상환과 자녀교육비, 부모님 용돈, 자동차 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전혀 없다는 얘기임
  -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은퇴이며 아무도 본인의 은퇴를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는 인생의 전반적인 재무목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마련과 은퇴자금임
  - 그만큼 은퇴자금의 규모는 생각보다 꽤 큼
  -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정작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은 짧은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임
- 은퇴준비자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음. 내 인생의 재무목표의 우선순위만 결정된다면 현재의 현금흐름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현재의 우선순위에서 은퇴가 밀렸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준비를 못한다는 게 불편한 진실임
  - 하지만 우선순위 조정뿐 아니라 가정에서 새나가는 지출, 즉 누수지출만 차단해도 은퇴를 위한 준비가 가능함
  - 필자는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도록 충실히 수지관리만 해도 약 10% 정도의 잉여자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7년 넘게 재무상담을 진행한 경험치로 알고 있음

### ○ 자녀 교육비

- 2010년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서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은퇴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자녀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이었음



- 2010 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 시장 규모는 약 21 조원,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4 만원에 달함.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0 만원을 훌쩍 뛰어넘음.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의 부인조차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이렇게까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와 출세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 때문임
  -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보상 받으려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또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때문임
  -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 학벌이나 연고주의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벌주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 문제는 자녀교육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생활비 중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자녀 가구의 경우 23.8%, 2 자녀 가구의 경우 59.0%, 3 자녀 가구의 경우 63.8% 등 평균 5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생활비 비중이 소득 대비 약 50%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를 위한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자녀 교육에 집중해 정작 본인의 은퇴 준비가 안 된다면 향후에 자녀에게 또 다른 큰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봐야 할 것임

○ 부동산에 대한 맹신

- 자녀교육비와 더불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적은 부동산에 대한 맹신임
  - 실제로 과거 투자 수단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게 아파트 위주의 주거용부동산이었음
  - 눈뜨면 몇 천 만원씩 매매가가 뛰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시 집주인이든 전세로 살던 사람이든 그 충격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것임
  - 하지만 과거의 부동산처럼 미래에도 부동산이 그 정도의 투자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과거의 부동산의 영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임
  - 주택마련이든 전세대출이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남는 잉여금을 모두 올인하는 가정이 많음
  - 이런 가정은 대부분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한다. 노후 준비는 말할 것도 없음
  - 은퇴를 오직 집 한 채에 의지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역모기지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나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향후 집값이 떨어진다면 나의 노후 생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Ⅲ. 은퇴를 위한 재무설계

○ 은퇴설계의 시작, 구체적인 은퇴목표 수립부터

- 유럽최고의 투자코치로 불리는 보도새퍼는 구체적인 큰 목표를 설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음
  - 삶을 살아가다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큰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임
  
- 구체적인 은퇴목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재무목표에는 예상은퇴시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기대수명, 월평균생활비, 예상 물가상승율, 예상 투자수익률, 현재까지 준비한 은퇴자금규모(공적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를 근거로 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 산출 후 부족자금을 계산함
  - 물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임. 비재무적목표에는 은퇴 후 거주할 곳과 은퇴 이후 근로여부(파트타임 등), 은퇴 후 약 3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함함

○ 재무목표 우선순위 정리

- 현재 본인의 나이에 맞춰서 재무적 목표를 나열해보고, 주택마련이나 자녀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은퇴자금 등 굵직한 재무목표부터, 자동차구입, 해외여행 등 다소 작은 재무목표도 나열해볼 필요가 있음
  - 이제 현재의 저축여력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면 아마 대부분 현재의 재무체력보다는 재무목표의 합이 더 클 것임
-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임. 주의할 점은 여러 재무목표 중 주요한 재무목표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
  - 한정된 자원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거쳐야하는 재무적인 사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하고 있음

○ 은퇴준비 3층 보장제도 활용하기

-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임
  -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두 자리 숫자라는 소문을 타서 임의 가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은 최소 10 년이상 불입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므로 가입기간이 채 10 년이 안된 개인은 추가불입하여 기간조건을 만족시켜야 향후 은퇴 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음
- 기업연금, 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연봉제 도입, 이직률 상승 등으로 은퇴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 년 12 월에 도입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짐
  -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로 인해 기업도산 시에도 안정성이 기할 수 있을뿐더러, 운용단계상 운용 수익이 발생되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이연(세금을 늦게내는) 효과가 있어 퇴직급여 적립금을 높일 수가 있음
  - 더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연금저축상품과 합쳐 연간 4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은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으로 구성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분과 합쳐 연간 400 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보았을 때 연금신탁의 경우 연금펀드나 연금보험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기존의 가입자라면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연금보험은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에 비해 납입의 유연성이 떨어지나,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미래사회에 유리한 수령방법을 가지고 있음



**<3층 보장제도>**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소득공제혜택을 100% 받게 되었다면,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을 노려볼만 함
  -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니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인 비과세혜택을 갖고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단, 보험사 상품의 경우 10 년 이내에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기간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함(단, 일시납의 경우는 제외)

**○ 건강관리와 위험관리**

- 은퇴자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강관리 자금임
  - 조금이라도 은퇴준비자금을 줄이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충실해야함
  - 꿈꾸는 진정한 노후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임
- 위험관리는 보험을 이용해 나의 위험을 이전시키는 방법임. 통상 확실한 미래는 저축 또는 투자로 준비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보험으로 준비함
  -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련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의 인상폭이 커지기 마련임
  - 또는 제대로 된 보험 가입 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많이 힘들어짐. 그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보험혜택과 내 지갑 안의 소중한 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함. 그래서 은퇴설계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제대로 된 위험관리라고함.

○ 은퇴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이득

- 통상 은퇴준비를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함
  - 20 대처럼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면 낮은 경사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되지만, 40/50 대처럼 은퇴가 멀지 않은 경우 급한 경사를 이겨내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비유임
  - 예를 들면, 50 세에 100 만원씩을 불입해야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30 세부터 준비했다면 약 30 만원 정도만 준비해도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임
- 은퇴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속에는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리의 마술도 포함되어있음.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즉 일찍 시작할수록 이자가 이자를 만드는 효과가 더욱 큼

○ 절대저축액을 늘려라.

- 은퇴자금마련을 위해 장기투자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절대저축액을 늘리는 것임. 절대저축액은 말 그대로 저축 및 투자금액임
  - 저금리시대와 더불어 투자수익률 역시 과거와 달리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음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수익상품을 노리다가 당신의 은퇴는 한 순간 헤어지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 있음. 은퇴를 위한 투자금액이 10 만원인데, 30 년 후 5 억원이 만들어져있을꺼란 생각은 애초부터 꿈도 꾸지않는 것이 좋음
  - 현실성 있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은퇴를 위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함

IV. 맺음말

- 필자가 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은퇴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매우 부족한 편임. 하지만 향후 10 년이 지난 시점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초기은퇴가 시작됐고, 한편 진행중일 것이기 때문에 은퇴한 노년층의 삶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임
- 개인적으로 은퇴준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겠지만, 이제 국가와 사회도 적극적으로 두 팔을 걷고 움직여야 할 시점임. 더 늦춰서는 안됨

- 유럽의 경우 저출산대책이 큰 효과가 없었을뿐더러 일부 효과를 보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요한 점을 보면 우리나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더 이상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은퇴준비를 못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음
- 
- 피할 수 없는 노령화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함
  - 왜냐하면 초고령화사회의 경우 노인은 국가로써 손놓고 지켜볼 대상이 아니라, 전체인구의 20% 차지하는 당연한 사회일원이기 때문임

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장 조천수(02-3452-1940, tiger@podofp.com)